

EYA NEWSLETTER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UNKNOWNNS

가제 : 언노운 클럽

저자 : Shirley-Anne McMillan

출판사: Atom

발행일: 2017년 12월 7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 지켜볼 만한 작가가 선보인 희망이 담긴 책” - 「아이리시 타임스」**

아무도 없는 시각, 인적이 드문 한밤 중에 벨파스트에서 가장 높은 곳만 찾아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취미인 킬리는 항구와 가까운 곳에 서 있던 크레인에 오른 어느 날 뜻밖의 친구가 생긴다. 집까지 꽤 먼 거리라 자전거를 끌고 왔는데, 컴컴한 밤하늘 아래 높은 곳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땅으로 내려오니 자전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웬 사람이 하나 서 있었다. 밤 늦은 시각이라 무섭기도 했지만 자전거가 없으면 집까지 한 시간은 족히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한 킬리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 하지만 새파란 눈 아래 짙은 아이라인을 그은 상대방은 자전거는 본 적도 없다고 딱 잡아땀다. 그저 밤에 산책을 나왔다가, 크레인 위에 사람이 있길래 이상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들어서 왔다는 것이다. 킬리는 최근 들어 자살을 택한 또래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을 놓지 못한다. 동시에 요상한 굵이 달린 신발까지 신은 그 예쁜장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남자는 처음 본 킬리에게 ‘파티’에 갈 생각인데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예의 바르게 거절한 뒤 비까지 내리는 야밤에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내내, 킬리는 그 묘한 만남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와의 인연은 첫 만남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계속 이어진다.

신문사 기자라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은 아빠는 킬리가 몰래 즐기는 취미생활은 전혀 모른다. 모든 생활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아빠에게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에 무작정 기어 올라가는 일은 취미가 아니라 목숨을 건 무모한 짓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에, 킬리는 속이 갑갑할 때면 아빠가 절대로 깨어 있지 않을 시간을 골라 한밤중에 취미생활을 즐겨온 것이다. 하지만 밤 외출을 하고 온 다음날이면 늦잠을 자기 일쑤라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에

는 달랐다. “대문 밖에 자전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하니, 비도 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톨리의 방문 밖에서 외치는 아빠의 잔소리에 눈이 자동으로 번쩍 뜨였다. 분명 잃어버렸는데?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달려나간 톨리는 대문 앞에 자전거가 하나도 망가진 곳 없이 세워져 있고, 바퀴살에 작은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어제 만난 남자, 브루가 남긴 메모였다. 그는 전화 번호와 함께, 파티가 또 있으니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는 말을 써 놓았다.

수업을 듣고,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하고, 가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던 톨리에게 브루와의 만남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 망설임이나 자전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았는지는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쪽지에 써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건 톨리에게 브루는 대뜸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톨리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모두에게 꼭 듣고 싶었던 말, “넌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는 말을 그의 입으로 듣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성격은 아빠를 꼭 닮았지만 아빠와 달리 남다른 취미생활을 즐기는 면이 자신에게 공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톨리는 직선적이면서도 불쾌하지 않게 다가오는 브루가 싫지 않았다. 그리고 톨리가 믿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브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아주 특별한 ‘그룹’에 톨리를 데려간다. ‘언노운’이라 불리는 작은 모임, 정체를 알 수 없는 70세 할머니 맥을 중심으로 나이도, 성별도, 생김새도 제각기 다른 멤버들이 모인 이 단체의 목적은 하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돕는다는 것이다.

톨리의 눈에 벨페스트에 사는 온갖 괴짜들이 다 모인 것 같은 ‘언노운’은 도시 한 켠에 방치된 폐가를 아지트로 삼아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과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정치 체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가 시간에는 각자의 감성을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늘 자로 잰 것처럼 바른 것만 해야 한다고 자신도 모르게 믿고 살아온 톨리는 정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 무정부주의 단체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 서서히 이들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언노운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톨리의 마음 속에는 큰 갈등이 자라난다. 이들이 주장하고 바라는 세상은 지금껏 톨리가 아빠로부터 배운 것과 전혀 달랐고, 그 상반된 생각들 속에서 정작 톨리 자신이 원하고 따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에 언노운이 끼여든 것이 화근이 되어 사람들이 이 그룹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톨리는 더 큰 혼란에 사로잡힌다. 급격한 갈등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고, 언노운이 여태 지키려 했던 사회 정의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이제라도 이 튀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남들처럼 조용히 평범한 삶을 살고 아빠가 바라는 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중산층으로 살아야 할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면, 그룹이 평소 추구해왔던 평화적인 가치를 수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상주의와 낙관주의가 현실과 맞닥뜨릴 때 벌어지는 일들을 위트와 유머를 잃지 않으며 그려낸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셜리 앤 맥밀란(Shirley-Anne McMillan)은 북아일랜드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벨파스트 예술 조합 ‘아이콘(IKON)’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벨파스트 퀸스 대학교와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제목 : EVERLESS

가제 : 에버리스

저자 : Sara Holland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8년 1월 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영국,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이란, 터키, 프랑스,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 “거친 스토리텔러인 저자가 쓴 이 소설은 피와 비밀, 매혹적인 신화가 어우러져 시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그 아래로 흐르는 섬뜩한 의미를 상기시킨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Caraval』의 작가, 스테파니 가버
- * “작가가 풍성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세련됨으로 치장된 겉모습 아래 숨겨진 암흑을 드러낸다. 진심으로 놀랄 만한 반전이 담긴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목숨과 바꾼 동전을 내놓고 단명하고,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은 동전을 끌어 모아 얻은 수명으로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생존하는 참담한 세상이 이 소설의 배경이다. 시간을 기반으로 지어진 이 감옥을 부서뜨리려는 여주인공의 도전을 그린 판타지 2부작이 완성됐다. 여주인공 줄스는 가난에 쪼들려 어쩔 수 없이 수명을 팔아 근근이 살아가고 있고, 줄지 않는 ‘시간의 빛’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 후 수명을 금괴처럼 켜켜이 쌓아 놓고 사는 가장 거대한 귀족 집안, 에버리스의 저택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오랫동안 세상에 엄청난 불균형을 가져온 비밀을 캐내고, 절망뿐인 미래에서 희망을 되찾기 위해 앞장서 나선다. 마법과 연금술이라는 판타지적 요소에 진한 로맨스와 액션이 가미된 흥미진진한 줄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줄스가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사는 집이 위치한 곳은 켄페라 왕국으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비가 있고 그 아래 다섯 귀족 가문이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고 있다. 이 다섯 귀족 가문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 중에서도 에버리스라는 영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걸링스 가문은 켄페라 토지 전체의 3분의 1을 소유할 정도로 막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드넓은 그 영토를 일구는 소작농들과 걸리스 가문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로부터 ‘정당한 요금’이라며 수명을 탈취해 부귀영화와 불멸의 삶까지 누리는 최대 권력자들이다. 사실 줄스가 일곱 살이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걸링스 가의 신망을 톡톡히 얻은 하인으로 에버리스에 살았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줄스는 가끔 화려하게 장식된 저택의 실내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듬어진 정원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걸링스 가의 아들 중에서도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리암이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걸링스 가에서 영원히 쫓겨났고, 그 때부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빛을 내서 겨우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했다. 켄페라 왕국에서는 몸에 피를 내고 거기에 연금술로 특별히 만들어낸 마법 가루

를 뿌리면 피의 철 성분이 응고되어 동전이 된다. 만들어낸 동전만큼 피를 낸 당사자의 수명은 줄어들고, 그 수명이 고스란히 담긴 동전은 돈처럼 거래되는 것이다.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 집세를 내기가 힘들었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피를 내어 그 동안 버텼지만, 이제 그 일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줄스는 잘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아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줄스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열일곱 살이 되면 누구나 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줄스는 자신이 나서서 아버지의 아슬아슬한 수명을 늘리기로 결심한다. 어쩌면 줄스에겐 가장 절박한 이 때 마침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다. 걸링스 가의 둘째 아들, 줄스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로안이 왕비의 외동딸 아이나 골드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전해진 것이다. 에버리스에서는 큰 행사를 앞두고 하인을 대거 고용하기로 했고, 한 달치 월급으로 무려 1년 치에 달하는 수명을 준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줄스의 친구들 여럿이 이미 에버리스로 떠나고, 망설이던 줄스도 결국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에버리스에 하녀로 지원한다.

파격적인 월급에도 불구하고 줄스가 마지막까지 망설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걸링스 가의 나이 든 영주, 로안의 부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어리고 예쁜 여자만 하녀로 고용하여 부인과 자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감 마냥 하녀를 데리고 논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 줄스는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우정보다 더 가까운 마음을 느꼈던 로안이 공주와 결혼하는 장면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는 것도 사실이었기에 줄스는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하고 에버리스로 향한다. 그러나 사태는 서서히 비극으로 치달는다. 줄스가 하녀로 일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아버지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걸링스 가의 누군가가, 혹은 여왕이 저지른 일임을 직감한 줄스는 진실을 직접 밝히려면 여왕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안에게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여전히 자상한 로안은 기꺼이 줄스를 돕지만 과거 부녀를 길거리로 내쫓은 장본인 리암이 또 다시 줄스의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줄스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한 옛 일을 언급하며 줄스를 불안하게 만든다. 공주와의 결혼을 앞둔 로안까지 줄스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허락 받지 못할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줄스의 삶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과연 줄스는 아버지가 내쳐진 진짜 이유를, 아버지를 죽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남의 피로 불멸의 삶을 얻는 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는 무서운 비밀은 무엇일까? 자신의 미래는 물론, 세상의 미래까지 바꿔놓을지 모를 줄스의 도전이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저자 소개>

새라 홀랜드(Sara Holland)는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차 판매점, 치과, 주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출판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서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으며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